

7. 결핵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규칙적인 투약이라고 생각하는 주부들은 52.76%로서 연령, 교육정도, 활동상태, 결핵력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8. 66.51%는 자신이 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교육, 연령, 활동상태, 가족 결핵력과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31.49% 중 그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현재 건강하기 때문이 60.28%였다.

9. 결핵검진을 위한 X-ray는 결핵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찍어야 한다가 42.59%, 정기적으로 찍어야 한다 42.13%, 활동상태, 가족 결핵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연령( $P < 0.01$ ), 교육정도( $P < 0.01$ )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기적 검진을 해야한다는 이들 중 검진 간격으로서는 1년에 1회가 74.72%로 가장 많았다.

10. 결핵 검진 경험은 66.60%가 있었으며 연령, 활동상태 결핵력과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교육과는 유의성( $P < 0.001$ )이 검증되었다. X-ray 경험자 중 경험시기는 2년이내가 63.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병원 지시 43.75%로, 결핵이 의심스러워 스스로 해본것 22.22%, 정규 검진 18.06%였다. 검진 장소로는 병원이 70.83%, 보건소 22.22%였다.

11. 91.71%는 결핵은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유의성은 교육정도( $P < 0.01$ )에서만 검증되었다.

12. 결핵 치료처로서는 병원 61.93%, 보건소 33.95%의 반응을 보여 주었다.

## 일부지역 영아 기질군의 분포조사

전북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8권, pp. 65~75.

### 김 명 애

본 조사는 일부지역 영아의 기질군의 분포를 알아보고 기질군에 따라 영아의 형제서열, 밤에 깨는 습관, 산통경험의 유무, 기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 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상은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3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영아 90명이며 영아의 행동 형태를 묘사하는 95개 문항으로된 Carey의 영아기질 조사도구를 번안 보안한 심의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에게 작성케한후 별도 채점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조사는 1981년도에 실시한 본 조사자의 '일부지역 영아의 기질성 경향에 대한 조사'에서 일차로 9개의 기질영역으로 된 영아의 기질성 경향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이에 나타난 평균 점수를 토대로 하여 5개의 기질군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영아의 영역별 산술평균을 이용한 기질군의 분포는 순하다 25.56%, 순한 편이다 41.11%, 까다로운 편이다 22.22%, 느리다 3.33%, 까다롭다 7.78%로 Carey

의 기질군 분포와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 < 0.05$ ),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배경에 맞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도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② 영아의 기질군별 남녀의 분포 차이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차이가 기질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영아의 형제 순위별 기질군의 차이에서 까다롭다, 까다로운 편이다, 느리다에서 높게 나타나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p < 0.05$ ) 형제 순위가 기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④ 기질군별 기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 유무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arey의 보고와 비슷하다. 내용으로는 수유문제, 심하게 떼를 쓴다, 너무 많이 운다, 성질이 급하다 등이 나왔다.

⑤ 밤에 깨는 습관과 영아의 기질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순하다, 순한 편이다에서 밤에 깨는 울이 낮으며, 까다로운 편이다, 느리다, 까다롭다는 군에서는 밤에 깨는 울이 매우 높아 수면 습관에 대한 수정이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⑥ 영아의 기질군에 따른 영아의 산통경험의 유무분포는 영아의 기질군과 산통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Carey의 보고와는 달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산통 자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해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해석이 된다.

## 인공유산이 모자보건에 미치는 영향

대동간전 논문집 제5집, pp. 23~32, 1986. 6.

### 김혜경

#### 결론

1985년 7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기혼가임여성 263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공유산실태 및 인공유산이 모자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응답자 263명중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부인이 130명으로 49.4%였으며 빈도별로는 1회경험이 가장 많았고 평균 인공유산 횟수는 0.88회였다.
2. 연령별 인공유산율은 35~39세의 부인이 가장 높았으며 35~39세를 정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40세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p < 0.01$ ).
3. 학력별 인공유산율은 학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공유산율은 증가하였다( $p < 0.01$ ).